

단원명: 세종대왕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단원명: 세종대왕

단원 설정의 취지

한국의 문자에 대해 묻는 미국 친구들에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한국에 그런 왕이 있었냐며 감탄한다. 그런 왕이라면 요즘의 미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마음 속에 존경하는 한국인 위인이 들어있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손꼽을 수 있는 한국의 위인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한글'을 창제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많은 업적을 쌓은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아이들에게 가르침으로서 진정한 영웅(hero)으로 아이들 마음 속에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이는 곧 아이들이 배우는 '한글'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단원의 목표

1. 세종대왕의 어진 (초상화) 및 동상을 통하여 임금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안다.
2.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의 마음을 배운다.
3. 세종대왕 때에 만들어진 과학 문화재, 음악, 의학 등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안다.
4. 당시 조선의 국민들을 어떤 차별없이 천국의 백성(Heaven's People)으로 만들고자 애썼던 세종대왕의 순수한 애민정신을 알아봄으로서 진정한 영웅이란 어떤 모습인지 알려준다.
5. 한국의 위인인 세종대왕의 자랑스러운 점을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한다.

차 례

단원명: 세종대왕	2
단원 설정의 취지	2
단원의 목표	2
교사 및 학생을 위한 활동 안내.....	4
교사를 위한 자료	6
학생 활동 및 평가지.....	13
활동 1: 세종대왕을 그려보세요.....	14
활동 2: 한글이 만들어지기 까지.....	15
활동 3: 기관 이름 맞추기	16
활동 4: 훈민정음 써보기	17
활동 5: 세종대왕 박물관 만들기.....	18
활동 6: 세종대왕께 드리는 편지.....	20
활동 7: 세종대왕이 내는 도전 퀴즈왕.....	21
활동 8: 세종대왕의 말과 행동	22
활동 9: 퀴즈왕, 세종대왕	24
활동 10: 연극 <내 친구 세종대왕>.....	25
활동 11: 주요 단어 카드	28

교사 및 학생을 위한 활동 안내

1. Power Point 자료 활용 및 학생 활동지 안내

Page	학습 제목	학습 내용
1	세종대왕 어진	세종대왕의 어진 (임금님의 초상화)을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옷을 색깔은 어떤지도 물어본다. 학생활동 1: 세종대왕을 그려봅시다.
2-6	훈민정음 집현전 옛 글자 모습 한글의 우수성 세종대왕의 말씀	- 훈민정음: 한글의 첫 이름. - 한글 단원에서 배운 한글 자모의 제자원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 - ㅇ 자음: 소리나는 기관을 본따서 만들. - ㅇ 모음: 만물의 근본인 하늘, 땅, 사람을 본따서 만들 - 초기 한글의 모습을 보여준다. (질문: 지금의 한글과 무엇이 다른지 질문한다. → 처음에는 스물여덟자를 만드심.) -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4 글자(△ ◦ ㄷ •)가 있다.) - 훈민정음 언해본을 쉽게 풀어쓴 글을 세종대왕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함께 읽어본 다음 무슨 뜻인지 이야기 해본다. 학생활동 2: 한글이 만들어지기까지 학생활동 3: 기관 이름 맞추기 학생활동 4: 훈민정음 써보기
7-9	세종대왕 기념관 세종대왕능 (영릉) 세종대왕 이야기 (광화문)	- 세종대왕의 유물과 이야기가 보존된 곳은 다음과 같다. - ㅇ 세종대왕 기념관 (http://sejongkorea.org) - ㅇ 영릉 (세종대왕능) (http://sejong.cha.go.kr/) - ㅇ 광화문 세종이야기 - 질문: 세종대왕의 유물을 다 보여준 후에 한국에 가면 어떤 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싶든지 물어본다. 학생활동 5: 세종대왕 박물관 만들기

		학생활동 6: 세종대왕께 드리는 편지쓰기 학생활동 7: 세종대왕이 내는 도전 퀴즈왕
10	세종실록	• 세종실록은 조선 세종의 즉위년 (1418 년)8 월부터 세종 32 년 (1450 년)2 월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조선왕조실록(Annals of the Chosun Dynasty)한 부분이다. 모두 163 권 154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년체로 쓰여 있다. • 세종실록을 함께 읽어보며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알아본다. 학생활동 8: 세종대왕의 말과 행동
11-13	세종대왕의 업적 세종대왕 시대의 발명품 훈민정음 서문가	• 세종대왕 시대에 만들어진 발명품의 이름과 용도를 안다. - o 측우기: 세계 최초의 강우량 (비의 양)을 재는 기구 - o 자격루: 물시계 - o 혼천의: 별을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 - o 신기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 o 앙부일구: 해시계 학생활동 9: 퀴즈왕, 세종대왕 학생활동 10: 연극 <내 친구 세종대왕> 학생활동: 훈민정음 서문가 불러보기
N/A	어휘 및 주요 단어	학생 활동 11: 주요 단어 카드

2. 어휘 및 주요 단어 (Vocabulary)

1. 훈민정음: the original name of Korean Alphabet
2. 업적: achievement
3. 집현전: Jade Hall, royal institute of research established by King Sejong the Great
4. 국악: Korean Traditional Music
5. 조선: Chosun Dynasty

6. 대왕: King the Great
7. 조선왕조실록: The Royal Annals (Record) of Chosun Dynasty
8. 발명: invention
9. 토론: debate, discussion
10. 과학: science
11. 세종실록: The Royal Annals (Record) of King Sejong the Great
12. 곤룡포: a king's robe

교사를 위한 자료

1. 천국의 백성을 꿈꾸며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상의 가장 빛나는 왕으로, 조선 5 백년 역사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닦아놓은 성왕 중의 성왕이다. 다양한 업적을 세웠지만, 이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종대왕이 가지고 있던 애민 정신이다. 대왕의 삶의 목표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천국의 백성들(Heaven's People)'로 만들어 사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왕은 한시도 쉬지 않았다.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세심한 곳까지 다다랐고, 그 예의 하나로 관가나 궁중의 여자 하인들은 30 일의 출산 전 휴가와 100 일의 산후휴가를 갖도록 했으며 임산부를 둔 남편들에게도 삼십 일의 산후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에 갇힌 죄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옥의 온도와 청결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곤 했다.

그의 이러한 정신은 모든 그의 공적의 바탕이 되었기에 그의 정신이 담겨있는 '조선왕조실록'의 어귀를 몇가지 인용해 본다.

- ①. (세종 5 년, 7 월 3 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게 된다”
- ②. (세종 7 년, 7 월 28 일) 임금이 가뭄이 걱정되어 18 일부터 열흘동안 밤을 세우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병이 났으나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 ③. (세종 14 년 8 월 17 일) 세종은 여름에 나이 많은 신하들이 더위에 고생할 것이 걱정되어 궁궐 안에서 시원한 건물을 찾아 그곳에서 일을 하도록 했고, 각 마을의 관공서와 궁궐에 노인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 이때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노인이라면 모두 들어와 참여하게 하였다.
 - ④. (세종 30 년 7 월 2 일) “전에는 더위를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몇 해 전부터 더위가 들기 시작하여, 손을 물에 담그었더니 더운 기운이 절로 풀렸다. 이로 생각하건데 죄수가 옥에 있으면 더위가 들기 쉬어 혹은 생명을 잃는 수가 있으니 참으로 불쌍한 일이다. 더운 때를 당하거든 동이에 물을 담아 옥 중에 넣고 자주 물을 갈아 죄수로 하여금 손을 씻게 하여 더위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 ⑤. (세종 5 년 12 월 23 일) “내가 궁중에 있으면서 손을 거두고 한가롭게 앉아 있을 때는 없다”
 - ⑥. (세종 24 년 3 월 19 일) “내가 그동안 많은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늙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글을 보는 동안에 생각이 일깨워져 여러가지로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봐도 글을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 ⑦. (13 년 3 월 25 일) “태평관의 어실(방)은 내가 잠시 휴식하는 곳이니 동충계는 다듬은 돌을 쓰지 않고 보통 돌을 써서 다듬느라고 힘들게 수고하지 않도록 하라”
- 세종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일 이외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는 절약을 실천했다. 공무를 하는 이외의 시간에는 기워진 옷을 입고 생활하고, 궁궐에서 쓰는 종이 또한 사용한 종이의 여백을 재활용하여 쓰게 했다.

2. 세종대왕의 업적

- ①. 한글의 창제: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한국학교협의회 제작 역사문화수업자료 <한글> 참고
- ②. 과학의 발달: 농업, 의학, 천문학 등에서 15 세기 주목할 만한 과학적 성취 중 29 개가 조선에서 나왔으며, 5 개가 중국, 0 개 일본, 26 개가 그 밖의 나라들이다. (과학사전,일본어판,1983 인용)
- ③. 국악의 발달:
 - 음악을 사랑했던 세종은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로 일컬어지는 박연과의 만남으로 15 세기 한국음악사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 세종은 박연을 시켜 모든 악기 제작에

기본이 되는 절대 음높이를 찾아 여기에 맞추어 기존의 악기들을 개량하고 여러가지 새 악기를 만들어 완전한 국악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도록 했다. 박연은 기준치의 음인 12 음을 찾은 후, 65 종의 악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중 9 종의 악기가 신 발명품이었다.

- 세종은 작곡도 했는데, 박연과 함께 200 여곡을 함께 작곡했고, 이 중 세종이 직접 만든 곡으로는 "정대업", "보태평", "봉래의"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노래와 춤과 기악 음악이 어우러지는 종합 예술적인 성격을 지닌 규모가 큰 음악들이다. 특히 "봉래의" 중 한 곡인 "여민락(백성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은 지금도 한국 전통음악 연주회의 중요한 레퍼토리이며 한국 국립국악원의 새해 첫 음악회의 연주곡이기도 하다. (마치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 송년 음악회의 연주 곡목이 되는 관례와 비슷하다.)
- 또 세종이 창안한 '정간보'는 원고지처럼 우물정자로 칸을 만들고 칸 안에 음높이를 나타내는 음이름을 적는 것이다. 이 악보는 음의 높이와 길이를 함께 적을 수 있는 악보로 당시 중국에도 없었던 새로운 기보법을 창안한 것으로 아시아 음악사에서 처음 만들어진 획기적인 일이었다. 한국음악계에서는 서양의 오선보와 함께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악보(정간보)로 인해서 많은 음악들이 600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져오고 있다.

④. 의학발달

- 한국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14~15 세기에 이르러 0.1%에서 0.4%로 늘었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한국 의학의 발전에 기인한다. 한국의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을 위해서 세종대왕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국에서 나는 약재를 정리한 <향약집성방>이 편찬되었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식물성 약재만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반해 이 책에는 광물성 109 종, 동물성 220 종, 식물성 374 종이 소개됐다. (총 85 권의 703 종의 약재) 또, 959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나와 있는데 각 병의 증상과 처방, 각 약재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기에 취채할 수 있는지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 또 당시 의학 지식을 집대성한 의약학 백과사전인 <의방유취>가 집현전 학자들과 의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편찬되었다. 365 권에 달하는 방대한 이 책은 동양의학사의 매우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의료기관과 왕실 의료기관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위한 의료 시설인 '혜민서', 무의탁 병자와 전염병 환자를 돌보는 '동서활인원'을 두었다. 또, 의학 교육 기관인 의학 습독청을 세우고, 재능있는 의학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 국가고시를 시행했다. 또 문과 출신자 중 우수한 인재들에게 의학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선비 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유능한 의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 일반백성들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경에 위치한 함경도나 제주도 등에 의관들을 파견하고, 의학 교재들을 변방에 배포했으며 의녀 제도를 보완하여 여자 환자들이 보다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옥의 죄수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의료진들을 옥에 교대로 투입시켜 병든 죄수들을 치료하게 했다.

⑤. 경전,민주주의 토론 문화 도입

- 경연은 임금이 학식이 깊은 학자 관료들을 만나 경서와 역사를 배우고 토의하는 자리였는데, 왕의 집무를 마치고 나면 자주 경연을 열어 학습을 했다.
- 대왕은 건강 문제로 경연을 중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1 년 동안 1898 회의 경연을 열었는데, 이는 선왕들의 경연에 참석한 횟수에 비교해 보면 놀랄만 하다. (태조 7 회, 정종 30 회, 태종 12 회)

⑥. 집현전 설치

-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인 왕립연구기관, '집현전'이 세종의 명에 의해 세종 2 년에 설치되었다. 과거합격자들로 이루어졌으며 절반이 과거 합격자의 1~5 등 안에 들었던 당시 최고의 두뇌 집단이었다. 학문적 작업에서부터 정치적 자문까지 다양한 일에 관여했는데 특히, 정치, 역사, 문학, 언어학, 지리, 윤리, 법률, 음악, 농업, 의학, 천문 등 다방면에 걸친 80 종의 서적과 수백 종에 이르는 보고서들이 집현전을 통해서 편찬되었다.

3. 학습지 자료 설명

- ①. 용비어천가: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책
- ②. 훈민정음 언해본: (1443 년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붙여진 이름이면서 그 해설서의 이름) 원래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중세 한국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책이다.

- ③. 훈민정음 언해본의 내용을 쉽게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④. UNESCO: 한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으며, 매년 문맹 퇴치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에 세종대왕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주고 있다.
- ⑤. 세종실록악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 (1986 년 발행, 국립국악원 음악총서에서 발췌) 정간보는 세종대왕이 창안한 악보로, 음을 한 정간(네모칸)에 기보하여 음의 높이와 길이를 함께 나타낼 수 있도록 한 악보로 서양의 5 선보와 함께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음의 높이와 길이가 함께 나타난 악보다.
- ⑥. 편경: 편경은 고려시대에 중국에서 수입된 타악기다. 당시 편경의 재료가 되는 경석이 귀하여 100% 수입에 의존했으나 세종 7 년 경석이 경기 지방에서 발견되자 즉시 세종대왕은 편경 제작에 나섰으며 우리의 힘으로 더 아름다운 소리의 편경을 만들게 되었다. 옥돌이라고 불리는 이 경석을 'ㄱ'자로 만들어 '하늘이 굽어 땅을 덮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음악을 사랑하고, 직접 작곡까지 했었던 세종대왕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중국에 의존하던 음악 문화를 우리 민족의 정서에 알맞는 것으로 새로이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명나라의 음악을 뛰어넘는 향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⑦. 측우기: 세계 최초의 기상관측 기구로써 1441 년, 세종 23 년, 비가 온 양을 확실히 알면 비로 인한 피해를 미리 알고 막을 수 있고 농사에도 도움이 된다. 세종대왕은 비가 온 양을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내는 측우기(빗물을 받아채는 그릇)와 하천의 물높이를 재는 수표를 만들었다. 이는 서양의 측우기보다 198 년 앞선 세계 최초의 측우기다.
- ⑧. 물시계 (자격루): 만원짜리 지폐에도 나와 있는 자격루는 1434 년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들어 국가 표준시계로 사용했다. 큰 물통에서 작은 물통으로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 작은 물통의 물이 물받이통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살대가 떠올라 지렛대와 쇠구슬을 쳐서 구슬이 떨어지게 했다. 그러면 궁궐 안밖의 종루 등에서 종이나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줬다. 특히 구슬이 떨어지면서 시각을 알리는 장치를 움직여 시간을

알리는 자동시보장치를 갖춘 것이 그 특징이며 위대한 발명품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면 사용할 수 없었던 해시계와 달리 물이 계속 흐르면서 밤이나 낮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시간을 알려줄수 있었던 점과 시각을 알리는 사람이 잘못 알리게 되면 중벌을 면치 못하는 것을 염려하여 장영실에게 명하여 시각을 알리는 일을 맡길 시보인형은 나무로 만들어 시각을 스스로 알림으로써 사람의 힘이 들지 않게 한 것 등에서 세종대왕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 ⑨. 혼천의: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여 천문시계 구실을 했던 기구이다. 혼천의는 오래 전부터 기후를 예측하기 위한 천문관측에 사용됐다. 그러나 측정을 할 때마다 손으로 작동을 해야했다. 1433 년, 세종 15 년 세종과 세자는 매일 별을 관측하는 간의대에서 숙직을 하며 천문학에 관심을 기울인 끝에 1438 년 장영실에게 혼천의를 만들게 했는데 이 혼천의는 수동으로 작동하는 일 없이도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한 기기였다. (간의대에는 별을 관측하는 전담관리가 임명되어 매일밤 5 명씩 숙직하며 별을 관측하였다.)
- ⑩. 세종대왕의 곤룡포: 늦게까지 남아 연구에 몰두하던 집현전 학자들이 깜빡 잠이 들며 자신이 입고 있던 곤룡포를 벗어서 덮어주던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집현전의 불이 꺼져야만 세종대왕 자신도 침소에 들었다고 한다.
- ⑪. 집현전: 오늘날도 볼 수 있는 경복궁의 수정전은 세종대왕이 만든 집현전이 사용했던 공간이다.
- ⑫. 신기전: 귀신같은 기계 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신기전은 화약을 종이로 만든 약통에 담아 대나무로 만든 막대에 붙여 발사하게 되어있다. 그 설계도가 남아 있어 현재에 와서 복원되었다. 신기전 설계도는 세계우주항공학회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로 인정받았다.
- ⑬. 해시계(양부일구): 1443 년, 세종 16 년에 장영실 등이 만든 것으로 태양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려주는 해시계이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한번에 알수 있는 시계로 가마솥 모양의 시반으로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졌을 때 끝이 흐려지지 않게 만든 것과 정확하고 독창적인 시간 계산법은 다른 나라보다 과학 기술이 앞서 있었음을 증명한다.

4. 관련 웹사이트

- 'King Sejong the Great'-Korean Spirit and Culture Series II
(<http://www.koreanhero.net/>)
- KSCPP(Korean Spirit and Culture Promotion Project) (<http://www.kscpp.net/>)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http://www.sejongkorea.org/>
- 혼천의 사진: 과학기술문화재 (혼천의) 복원설계용역 보고서, 1994 년 9 월
- 훈민정음언해본 사진: 서강대학교 소장 '월인석보' 앞에 수록된 판본

단원명: 세종대왕

학생 활동 및 평가지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활동 1: 세종대왕을 그려 봅시다.

아래는 조선 왕조의 네 번째 왕이신 세종대왕의 초상화입니다. 세종대왕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쓰고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는 한글을 만드셨고 백성들에 대한 사랑으로 과학과 음악 및 여러 방면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한 우리 역사속의 자랑스러운 위인입니다.

세종대왕의 훌륭한 업적을 생각하며 잘 그려 봅시다.



아래의 빈칸에 글씨를 써보고 읽어봅시다.

세	종	대	왕		훈	민	정	음

활동 2: 한글이 만들어지기 까지

아래는 한글이 만들어질 때부터 현재까지의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의 글을 순서에 맞추어서 미니북으로 만들어 봅시다. 미니북에는 글을 싣고 그림과 사진도 그리거나 오려서 붙여 봅시다.



<훈민정음 언해본>

가	1443 년 겨울, 한글이 발표되었다.
나	한글이 만들어지고, 3 년 후, 1446 년 한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사용법을 담은 해설서와 같은 '훈민정음'이란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다	중국의 문화와 문자, 학문 등은 한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었고, 중국의 한자를 글자로 사용했지만, 한국의 말은 중국의 한자와는 잘 맞지 않았다.
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세종은 몸이 약해져 여러가지 병을 얻은 후에도, 마지막 남은 힘을 한글을 만드는데 쏟았다.
마	한글은 만들어지고 나서도 3 년 동안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험해 보고 불편함이 없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바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제 한글은 말(language)은 있으나 글자(character)가 없는 소수민족의 문자로 사용되고 있다.

활동 3: 기관 이름 맞추기

아래의 글은 세종대왕 시대의 한 기관에 관한 설명입니다. 설명을 읽고 기관의 이름을 아래에 한글로 써 봅시다.

In response to Sejong's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royal institute of research, this organization was made within the palace grounds in March, 1420, the second year of his reign. They were clearly a very talented group, although very young when they joined the group, usually at the age of 23 or 24. Sejong took on many projects in the thirty-two years of his reign, all of which contributed to the welfare of the public but took many years to complete. The successful undertaking of so many projects at one time is a remarkable feat, rarely found in the records of history. Sejong was determined to achieve perfection in these projects and made great use of the intellectual resources available to him at this group. The duties assigned to the scholars ranged widely from purely academic assignments to more active advisory roles in politics. Eighty new books and several hundreds pamphlets and reports were published through this organiza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covering the subjects of politics, history, literature, linguistics, geography, philosophy, law, music, agriculture, medicine, astronomy and others. The volume and variety of books published through this organization demonstrates King Sejong's deep concern with improving the daily life of all his subjects regardless of their class and status through wise government and the study of literature. (www.koreanhero.net)

1. 위의 글에서 설명하는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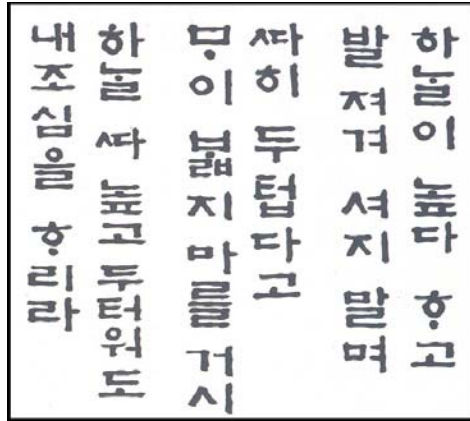
2. 어떤 나이의 사람들이 이 기관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까?

3. 학자들은 어떤 주제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까?

4. 세종대왕은 왜 이 기관을 설립하였습니까?

활동 4: 훈민정음 써보기

다음의 옛글을 보고 아래의 빈칸에 써 봅시다.



조선시대, '주의식'의 시조

뜻: "하늘이 높다하여 발돋움하고 서지 말 것이며
땅이 한없이 두텁다 해서 힘주어 밟지 말아야 한다.

하늘과 땅이 높고 두터워도 조심을 하라"
(세상의 모든 것을 조심하여 살 것을 가르친 노래.)

활동 5: 세종대왕 박물관 만들기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세종대왕을 소개하는 박물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직접 박물관을 꾸며 봅시다. 박물관은 세종대왕의 주요한 업적을 소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4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전시관의 각 부분에서 소개할 업적과 전시물을 아래의 보기에서 잘라 아래에 붙여 봅시다.

<한글실>
<과학실>
<애민실>
<국악실>



용비어천가: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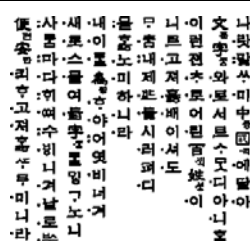
편경: 중국에서 들여와 한국의 재료로 개량한 악기



측우기: 비의 양을 재는 기구 (rain gauge)



혼천의 (an armillary sp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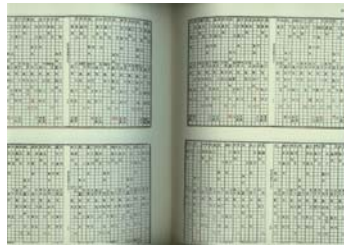
훈민정음



세종대왕의 곤룡포



물시계, 자격루



세종실록 악보



UNESCO
국제
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경복궁 수정전: 집현전이 있던 자리



신기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포



양부일구, 해시계

활동 6: 세종대왕께 드리는 편지

세종대왕은 우리들이 쓰는 한글을 만드신 조선왕조 제 4 대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10 년을 연구하여 마침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이름으로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세종대왕께 한글을 배우면서 좋았던 기억을 담은 편지를 ‘한글’로 써보면 어떨까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의 편지를 보시면 세종대왕께서도 분명히 매우 좋아하실 것입니다. **다음의 편지지에 세종대왕께 드리는 편지를 써 봅시다.**

세종대왕님께:

[illegible]

올림

활동 7: 세종대왕이 내는 도전 퀴즈왕

다음은 세종대왕의 말씀입니다. 빈칸에 맞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빈칸에 써 봅시다.

"미국에서 나에 대해 배운다고 하니 참 기특하다.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을 것이니 아는 대로 답을 골라 써 보거라."

1. 나는 모든 백성들이 책을 읽을 수 있고, 책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도록 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답: _____
2. 나는 음악을 사랑해서 작곡을 하기도 했고, 우리 고유의 악보를 만들어서 음의 높이와 길이를 함께 나타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악보였지. 이 악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답: _____
3. 나는 이걸 보는 걸 너무 좋아했다. 어릴 때부터 이걸 잡으면 100 번씩 표시를 해서 보곤 했지. 나의 아버지인 태종대왕께서는 이런 내가 걱정이 되어서 내 방에 있는 이것을 모두 숨겨버리곤 했단다. 답: _____
4. 내가 했던 여러가지 일들은 후에 널리 알려지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후손들이 나의 초상화를 돈 속에 넣었다. 그 돈은 바로 이것이다. 답: _____
5.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과학(science)의 발전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과 농사에 도움을 주도록 했지. 그 중 하나가 세계 최초로 비를 측정하는 이것이다. 이것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답: _____

<보기>

만원(10,000 원), 정관보, 측우기, 훈민정음, 책

활동 8: 세종대왕의 말과 행동

다음은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말과 행동에 관한 글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보고 왜 그런지 이유를 써 봅시다.

1.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게 된다. "The common people are the foundation of any country. It is only when this foundation is strong that a country may be stable and prosperous."
2.	임금이 가뭄이 걱정되어 18일부터 열흘동안 밤을 세우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문에 병이 났으나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다. "For the past ten days, since the 18th of the month, the King has stayed awake until dawn out of concern for the drought. He has become ill as a result, but has forbidden the announcement of his illness to the public."
3.	세종은 여름에 나이 많은 신하들이 더위에 고생할 것이 걱정되어 궁궐 안에서 시원한 건물을 찾아 그곳에서 일을 하도록 했고, 각 마을에서 노인들을 모두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 "Worried that the senior courtiers might suffer from the summer heat, King Sejong searched for cool buildings in the palace grounds where they could work in comfort. He also invited the elderly to a banquet in their honor at the government offices in each of the Provinces, including the Royal Palace."
4.	전에는 더위를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몇해 전부터 더위가 들기 시작하더니 손을 찬물에 담그었더니 더운 기운이 절로 풀렸다. 죄수가 감옥에 있으면 더위가 들기 쉬워 죽는 수도 있으니 참 불쌍한 일이다. 찬물을 담아 옥중에 넣고 자주 물을 갈아 죄수로 하여금 손을 씻게 하여 더위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떤가? "In the past, I have not been afraid of the heat. As the climate has grown more extreme in recent years, I have begun to soak my hands in water during hot weather. When I do so, the feeling of heat immediately disappears. This had led me to reflect how easy it must be for a man in a prison to be affected by the heat. Some, I believe, even lose their lives because of it, and this is greatly distressing. When there is very hot weather, let us place small jars of water in the cells of the

	prisons, and replace the water frequently, direction the prisoners to wash their hands so that they are not affected by the heat."
5.	내가 그동안 많은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 늙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책을 손에서 놓치 않는 것은 글을 보는 동안에 생각이 잘 나서 여러가지로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봐도 글을 읽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No classical or historical works have escaped my attention, and although I am now unable to remember with ease due to my age, I do not stop my reading, because as I read, my thoughts are awakened, and many of these thoughts become deeds in my administration of the State. Seen in this light, reading is indeed a source of great benefit."

위의 기록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번호를 써 봅시다. _____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동 9: 퀴즈왕, 세종대왕

다음의 퀴즈에 O, X로 답해 봅시다.

1. 세종대왕은 고구려 때의 왕으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가장 넓게 넓힌 왕이다. ()
2. 세종대왕은 우리의 글을 만들기 위해 10 년의 시간 동안 연구했으며, 한글을 만든 후에는 잘 사용될 수 있을지 3 년을 연구하고 조사했다. ()
3. 세종대왕은 왕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는 시간 이외에는 기워진 옷을 입고 생활하고 궁궐에서 쓰는 종이도 사용한 종이를 다시 재활용해서 쓰게 했다. ()
4. 세종대왕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싫어하여 아버지였던 태종은 아들이 염려되어 책을 가져다가 방을 장식해 주었다. ()
5. 지난 2009 년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짜아짜아족은 서로의 말을 기록할 글이 없어서 '한글'을 공식 문자로 받아들여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6. 왕이 된 후, 세종대왕은 매일 학자들을 만나 역사를 배우고 토론하며 학문을 넓혀 나갔다. ()
7. 세종은 노비와 같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신경을 써서 주인이 노비를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면 엄한 벌을 받게 했다. ()
8. 세종은 음악을 사랑하여 직접 작곡을 하기도 했다. ()
9.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측우기는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세계 최초라고 알려진 이탈리아의 기구보다 200 년 앞선 발명이다. ()
10. 세종대왕은 한글의 이름을 훈민정음, 즉, 사람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이름 붙였다. ()
11. 한글은 만들어지고 나서 중국의 글자를 버리면 안된다는 많은 반대를 겪었다. ()
12.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모래시계의 이름은 양부일구다. ()

활동 10: 연극 <내 친구 세종대왕>

다음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던 때의 모습을 담은 연극 대본입니다. 대본을 읽어보고 배역을 정하여 연극을 해봅시다.

나오는 사람: 훈미(생쥐), 정음(생쥐),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 1, 집현전 학자 2

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던 때

장소: 경복궁

제 1 막

어두운 밤, 경복궁 안

훈미: 아이고, 추워라. 먹을 건 없고, 춥고, 참 생쥐로 살기 힘들다.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정음: 모르는 소리 말아. 저 큰 방에 사는 할아버지는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훈미: 사람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정음: 아니야. 난 저 할아버지가 자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 맨날 책만 들여다 보고 있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눈도 잘 안보이는 것 같고, 아픈 데도 많더라.

훈미: 왜 그렇게 책만 보시는데?

정음: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또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만 보면 고개를 숙이고 들지도 못한다.

훈미: 그럼, 우리 그 할아버지 한번 보러 갈까? 도대체 뭘 하시는지?

정음: 그래.

(훈미와 정음은 방을 옮겨가고,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세종대왕을 본다. 세종대왕은 눈이 피로한지 눈을 계속 비빈다.)

정음: 저것 봐. 밤이 깊었는데 계속 공부하고 계시지?

훈미: 가까이 가서 보자.

세종: (혼잣말로) 음, 하늘과 땅, 사람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면 어떨까?

훈미: 생쥐는 어때요?

세종: 아니 너희들은 밤에 다니는 쥐 친구로구나.

정음: 할아버지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세요?

세종: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한가롭게 앉아 있을 때가 없구나.

훈미: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러세요?

세종: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알려주었지. 해시계, 물시계가 바로 그것이란단. 중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음악을 담을 수 있도록 정관보라는 악보도

만들었고, 우리 땅에서 나오는 재료로 약기도 만들었다.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로켓포도 만들었고, 별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 별을 관찰하는 기구와 별의 움직임을 담은 지도도 만들었다.

훈미: 아이고,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그걸 다 하셨어요?

세종:나에겐 훌륭한 학자와 과학자들이 많단다. 집현전이라는 아는 것 많은 학자들의 모임도 그 하나요. 장영실이라는 재주많은 발명가도 있단다.

정음: 할아버지는 계속 다른 사람만 도와주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건강이 자꾸 나빠지지지요.

훈미: 눈도 많이 안좋으신 것 같은데...

세종: 사람들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단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게 왕인 나의 할 일이지.

집현전 학자 1 과 2 들어온다.

집현전 학자 1: 폐하, 이제 밤이 깊었으니 그만 침소에 드시옵소서. 내일 또 경연이 있는 날이옵니다.

훈미: 경연이 뭔데요?

집현전 학자 2: 으악, 쥐다. (쥐를 내쫓으려 하며, 세종에게) 폐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세종: 그리 놀랄 것 없느니라. 작은 동물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귀한 것과 같이 말이야.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내 밤동무가 되어주지 않느냐? (훈미를 보며) 경연은 말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들과 아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모여 옛 책을 읽으며 배우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토론도 하지.

집현전 학자 1: 폐하께서는 우리 학자들의 모임인 집현전에 무엇보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신단다.

정음: 으음, 폐하!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생각이 많이 나요? 난 늘 먹는 생각만 나는데...

세종: 나는 책을 읽을때 백 번씩 읽었다. 읽을 때마다 책 앞에 표시를 해서 얼마나 읽었는지 알 수 있도록 했지.

정음: 아니, 읽은 걸 또 읽어요?

세종: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달라지고 배우는 것도 더 많아지지.

훈미:그런데, 그 많이 배운 걸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세종: 나에게 사람들은 나의 하늘이고, 땅이고, 우주다. 사람들 하나하나가 잘 사는게 나의 바람이야.

집현전 학자 1: 폐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자음은 다 만들어졌는데, 자음을 연결하는 모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지 통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세종: 음, 모음이라면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다. (—, ㅣ, • 낱말 카드를 들며) 이것을 가지고 모음을 만드는 것이다. • 는 하늘이요, —는 땅이요, ㅣ는 곧 사람을 말하는 것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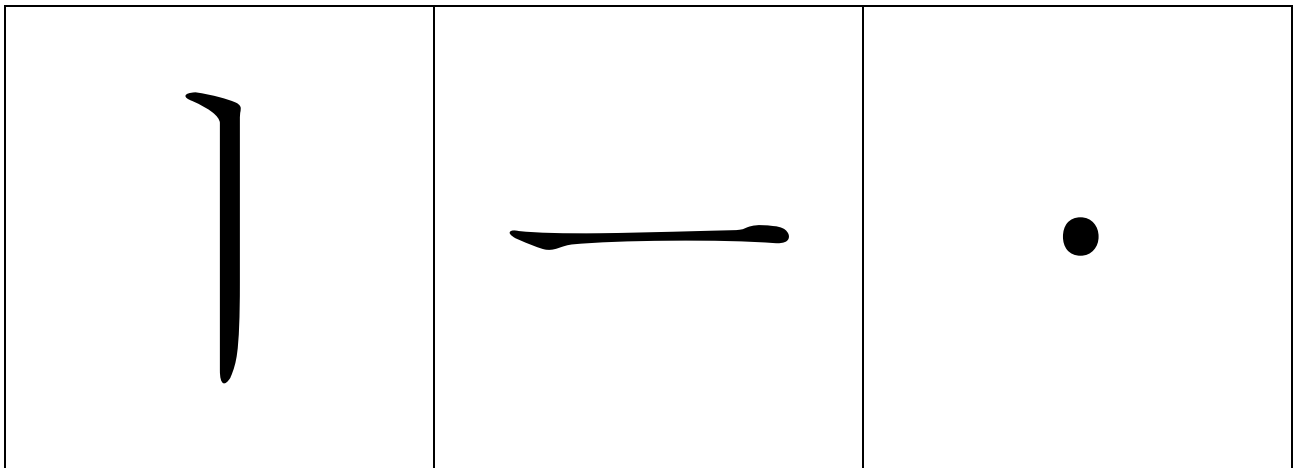
훈미,정음: 어, 그건 방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세종: 그래. 이 세 가지를 서로 합하면 더 많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지. 이 글자들로 그동안 바라던 우리의 글자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야.

집현전 학자,1,2: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훈미,정음: 세종대왕 만세!

필요한 소도구: 모음표



활동 11: 주요 단어 카드

훈민정음	original name of Korean Alphabet
집현전	Jade Hall, royal institute of research established by King Sejong the Great
국악	Korean Traditional Music
조선	Chosun Dynasty

실록	The Royal Annal
발명	invention
토론	debate
과학	science

업적	achievement
곤룡포	King's robe

활동지 답안지

활동 4: 다, 라, 가, 마, 나, 바의 순서로 학생들이 미니북을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활동 5:

1. 집현전
2. 23-24 세
3. 정치, 역사, 문학, 언어, 지리, 철학, 법, 음악, 농사, 의학, 천문학 등
4.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깊이 사랑하셔서 그들이 어떤 지위나 신분에 있더라도 매일
매일의 삶이 편안하고 더 나아지기를 원하심

활동 6:

1. 훈민정음
2. 정간보
3. 책
4. 만원
5. 측우기

활동 10:

1. X
2. O
3. O
4. X
5. O
6. O
7. O
8. O
9. O
10. O
11. O
12. X